

한국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연구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t Waterfront Areas in Korea

이유경*, 이승호**

Yoo Kyung Lee, Seung Ho Lee

요 지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정부가 선정한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중 수변공간 관련 사업을 선별하여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한다. 도시 재생사업에서 거버넌스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협업을 통한 민간 커뮤니티의 역할과 주민참여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Tallon(2013)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네 가지 형태—관주도(top-down), 주민주도(bottom-up), 시장주도(market-led), 지주주도(property-led) 재생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세부내용을 분석한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시행단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수변공간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 20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심 내 하천변과 해안가를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는 ① 생태하천복원, ②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한 수변관광지 개발, ③ 수변네트워크·녹지·산책로 조성 ④ 항구 기반 수변도시개발 및 도심재생, ⑤ 섬의 이점을 활용한 수변경관사업, ⑥ 조선업 침체지역재생 등이 있었다.

한국의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은 가장 일반적인 도시재생방식인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선시되고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공공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시 영도구와 경상남도 통영시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협업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방식은 ‘주민참여협의체’를 통하여 일부 반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봉·노원구, 인천시 부평구,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시 영도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한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는 부족함을 보였다. 더불어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시장주도의 도시재생 접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핵심용어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변공간, 거버넌스

* 정희원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재생협동과정 박사수료 · E-mail : julep13@korea.ac.kr

** 정희원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및 일반대학원 도시재생협동과정 교수 · E-mail : seungholee@korea.ac.kr